



사회문제 토론회 2회기

생명존중이란 무엇인가?

생명 존중: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함.

★ 생명 존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 사례 살펴보기 (2회기)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 전주동물원 변신 코앞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 물결 밀려
코끼리사와 초원의 숲 등 마무리

기사 속 사진: 연합뉴스 - 2022년 02월 14일 16:41:19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주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코끼리사 조성사업 △초원의 숲 조성사업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관광안내소·메표소 신축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신축 등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원 내 도화원과 중앙잔디광장 일원에 각각 코끼리사와 초원의 숲을 조성한다.

기존 코끼리사 옆 옛 도화원은 코끼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조성된다. 코끼리사의 경우 오랜 시간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추진된 이후 흙과 모래로 된 바닥에서 살게 된 코끼리에게 본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코끼리사 바로 옆 옛 중앙잔디광장에 조성되는 초원의 숲에는 전주동물원의 새 가족이 될 얼룩말이 뛰어노는 초원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사 + 일러스트
미국서 확대받은 판다...아일리시 “중국으로 보내주자”

인원 : 2022-02-12 16:00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에 있는 판다 ‘아야와’ ‘로르’의 모습. Change.org 홈페이지 캡처.

‘아야’와 ‘로르’는 2003년 중국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베이징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멤피스 동물원에서 18년째 지내고 있다. ‘아야’와 ‘로르’의 임대 계약은 2013년에 10년 더 갱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두 마리의 판다 모두 영양실조, 피부병 등을 앓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다른 기호 환경과 감금 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다. 특히 아야는 4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원은 지난해 8월 판다의 복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판다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었다”며 “아야는 단지 조금 특별해 보일 뿐, 건강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야와 로르의 중국 귀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전 세계에서 11만여명이 참여했다. 플뢰르 다우스 IDAUSA 대표는 “아일리시의 참여가 아야와 로르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를 읽고 나서 나의 생각 적어보기:



사회문제 토론회 2회기

**토론 주제: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니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

찬성 입장

동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므로 동물원에
가둬두어서는 안되며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야야 하므로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

반대 입장

살아 있는 동물이지만 동물원에서도 자연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동물원은 있어도 된다.